

새만금간척지를 다녀와서...

4월 26일 토요일 아침.

전날 행사로 인해 심신이 피곤한 상태에서 우리 일행은 버스에 올랐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을 시찰한다는 것이 조금은 설레었다.

처음에 도착한 곳이 새만금사업단 홍보전시관. 양윤식 전시관장으로 부터 그동안 새만금방조제 추진사업과 향후 활용도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새만금 간척지 조성은 친환경 개발을 기본원칙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마련하겠다는 전대미문의 대형 국책사업이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은 사업이었다.

새만금 방조제는 1991년 11월에 착공하여 2006년 4월 21일에 마지막 물막이 공사를 끝으로 세계 최장 33km의 대역사가 완공됐다. 방조제는 평균 저폭 290m, 높이 36m이다.

현재까지 새만금의 기본구상은 농업용지, 도시용지, 산업용지, 환경용지, 관광용지, 에너지용지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기본구상이 바뀔 수도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새만금에 대한 이러한 기본구상과 미래 청사진을 들은 후 우리는 다시 버스에 올랐다. 일행을 태운 버스는 곧게 뻗은 방조제를 유유히 지나가며 우리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섬의 모양이 '날아가는 기러기를 닮았다'는 비안도를 옆으로 하고 비포장 길을 계속 달렸다. 주변에는 아직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었다. 방조제 출입은 아직까지 일반인에게 완전 개방되지 않고 있다. 다행히 우리 일행은 전라북도의 협조아래 중간지점인 탐망대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다.

가는 길은 비포장으로 아직도 기초공사만 이뤄져 있었다.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마무리 공사를 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한참을 달려 탐망대에 도착한 우리는 주변의 고군산군도와 선유도를



김병오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사무국장

내려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새만금간척지가 조성되면 총 4만여 ha 중 2만8천여ha의 토지와 1만2천ha에 가까운 담수호를 얻게 된다는 안내자의 말이 귀에 와 닿았다. 그야말로 우리의 지도를 바꾸는 대역사라고 생각했다. 이 광활한 지역을 한눈에 내려보는 느낌은 새로운 신천지를 보는 듯 했다.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니 한편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우리 일행은 전망대에서 잠시 머무른 후 기념촬영을 하고 다시 버스에 올랐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새만금을 세계적인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하여 후손에게 자랑스런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는 관계자의 말을 되새겼다.

환경인의 한 사람으로 부디 친환경적인 사업이 되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K)